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배어 나온 창의력’

-초창기 연구지원 행정체제-

이윤기

1. 개요

1970년부터 1974년까지의 전자계산실 행정관계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이 당시 조직 형태는 완전히 한국과학기술 연구소 밑에 연구실인 ‘전자계산 연구실’로 있다
가 ‘전자계산 개발실’과 ‘전자계산 운영실’로 한지붕 밑 두 살림을 차리는 조직의 변형이 있
었던 시기이며, 성기수 박사님이 실장으로서 전자계산 연구실을 이끌고 있었다.

CDC 3300 컴퓨터가 1970년 설치 완료되어 그 위력을 발휘하면서 해마다 연구실의 규모가
급성장하고, 정부관계 프로젝트인 대학입학 예비고사, 체신부 전화요금, 전매청, 서울시, 군
관계 전산 처리와 동아제약 관계 등 민간관련 업무를 성공리에 개발완료하는, 그야말로 한국
과학기술 연구소가 전자계산실의 존재로 인하여 그 빛을 발할 정도로 전자계산 연구실은 그 중추
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 당시 성기수 박사님의 지도 아래서 훈련받은 많은 연구원들이 사회 각계
의 요소 요소에 배출되어 현재 우리나라 정보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때의 행정이란, 어떻게 하면 연구원들이 불편 없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그 존재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 연구소(KIST)의 행정부서와
전자계산연구실과의 교량 역할, 내부적으로 연구원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조달 및 환경
조성, 성기수 박사님이 지향하시는 ‘자유 창의적 근무 자세’를 연구원들이 잘못 이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조직질서의 해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 등이 그 근간의 일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는 지금 생각할 때 연구원 채용이었다.

연구소의 인사채용 계획에 의하여 연구원을 채용할 때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전자계산실은 그 성장 속도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연구원의 채용이 요청되곤 했다.

또한 위촉 연구원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던 훌륭한 분들도 빨리 정식 연구원으로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전자계산실만의 입사 시험을 치루도록 연구소의 지원을 얻어 내야 했다. 시험문제 출제와 시험관리 등 전자계산실의 행정을 맡고 있던 총무가 연구소의 인사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수시로'와 '위임 받는 일'이 그리 수월치가 않아서 보통 힘든 게 아니었다.

연구 업무의 내용이 방대해지고 그 종류도 다양해져서 바로 더 큰 용량의 컴퓨터가 필요하게 됐고, 마침내 사이버 시스템으로 새로운 컴퓨터를 도입토록 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구소 내부 관련 부서를 설득하는 일과 심지어 과학기술처를 이해시켜야 컴퓨터 도입 심의 위원회를 통과시킬 수가 있었다.

그 도입의 타당성, 경제성, 활용 용도 등 모든 것을 서류로 작성하여 처리하곤 했는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때의 그 힘든 일이 오늘날 시스템공학연구소가 세계적인 크레이 시스템을 가지게 된 초석이 되었을 것이다. 힘들었다고 기술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 컴퓨터에 관한 인식이 정말 부족한 상태에서, 성기수 박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첨단 컴퓨터가 전자계산실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확고 부동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현시켜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성기수 박사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총무와 각 팀장들의 역할이었다.

2. 몇 가지 이야기

• 2만원짜리 점심

이 시기 KIST의 복리후생 제도 중 점심 식사는 정말 최고급이었다. 물론 해외 과학자들은

유치하여 과학 중흥을 꾀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의 덕택으로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다. 근무하는 연구실, 총각 연구원을 위한 기숙사, 기혼자를 위한 아파트, 출퇴근 버스, 봉급 등 모든 것이 최상류였다. 그때 필자는 사기업(私企業)과 KIST에 이중 합격하여 고민 끝에 KIST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 사기업(현재 모 대기업)의 월급이 1만 9천원이었는데 KIST는 4만 2천원이었으니(1970), 차가집에 가서도 가슴을 펼 수 있었다.

그때 존슨 강당 옆에 있던 식당에서 점심에 먹었던 비프까스는 마음씨 좋은 주방장이 덩씩 덩씩 고기를 썰어서 그런지, 요사이 시중의 양식당에서 그만큼 양과 질의 비프까스를 사먹으려면 2만원은 족히 지불해야 할 식사였다. 그런데도 그때는 맛이 없고 매일 비슷한 것을 먹어서 냄새난다고 불평들을 했으니 정말 입이란 간사한 놈이다.

친구들이 찾아 왔다가는 혀를 내두르고 돌아가곤 했다. 그 당시 아방궁 같은 건물 속에서 그렇게 좋은 점심을 잡수고 계시니. 그때 식권으로 먹었는데 친구를 식탁에 앉혀 놓고 식사를 타다 대접했으니, 그 친구는 내가 현금 내고 사온 줄로 알았겠지. 기가 죽어 얼마짜리냐고 물어 보지도 못하고.

• 딸이 열들

자나 깨나 불조심이란 표어가 있듯이, 그때 우리 연구원들은 자나 깨나 연구 결과를 컴퓨터에서 얻어내려고 연구실에서 새우잠 자기가 다반사였다. 누가 시켜서 밤새라고 했으면 아마 아무도 밤샘을 하지 않고 그리운 부인 옆으로 퇴근들을 했을 것이다.

자진하여 일을 했다. 지금 생각하니 이것이 참여의식이란 놈인 것 같다.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을까. 성기수 박사의 리더십에 그 공이 있었다. 성기수 박사는 보기에 따라 책임 회피의 인상이 들 정도로 프로젝트 리더에게 왕창 권한과 책임을 위양했다. 너무 한다 싶을 정도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창의력을 발휘케 한 성기수 박사의 경영 철학이 그 위대한 자발정신을 불러 온 것이다. 성기수 박사는 보이지 않게 프로젝트간의 선의의 경쟁도 유도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총무가 할 일은 일과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작업대 구입과 모포 준비였다. 젊은 연구원들이라 그런지 딱딱한 작업대에서 잠깐 동안 수면을 취하고도 누구 하나

허리가 아프다든지, 소화가 잘 안된다든지, 변비가 생겼다든지 하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전혀 없었다. 정신력이 지배하는 근무 자세의 결과였으리라.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서서히 생기고 있었다.

1972년은 1월부터 2세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잉태한 것은 틀림없이 1971년 중이거나 1972년 초, 낭군들이 정신없이 전자계산실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였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신랑인 우리 연구원들은 가정에서 가지고 있던 권리 의무 사항을 성실하게 발휘하여, 가문에 보답하고 국가 사회에 공헌하는 노고에 노고를 거듭한 결과 2세들이 세상 구경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피곤했던 때문인지, 신부들의 능력이 부족했던 때문인지 간에, 1월 14일 필자가 득녀한 이래, 그해 12쌍이 생산을 했지만 모두 득녀를 하는 진귀한 대기록을 수립했던 것이다. 지금은 이 2세들 중에 결혼한 사람도 있어 그들의 2세를 보았을테니 이럴 때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것인가.

이 진기록은 그 결과가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간에 성기수 박사의 흑사(?) 정책 덕분이었다고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성기수 전산실 청문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

기르는 재미는 여아가 훨씬 좋다고들 한다. 또 길러 놓으면 비행기 타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고 장모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안사람은 내리 '노 스트라이크 투 볼'이다. 만약 비행기 못 타면, 성 박사님이 우주선 태워 주시려나, 12명 모두 태워 주시려면 꽤나 돈이 들텐데,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로 동창회를 조직하여 시스템공학연구소 앞에서 데모라도 할까 보다.

• 내가 책임 지지

대학입학 예비고사 컴퓨터 처리는 우리 전자계산실의 중요한 프로젝트 중의 하나임을 떠나 국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갖게 했으며, 그 처리의 공정성과 시한내의 처리 마감은 이 프로젝트의 생명이었다.

아파트 컴퓨터 추첨이다, 무슨 추첨이다 하면서 부정이 개재되어 사회적 무리를 빚은 적이 한두번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입학·예비고사를 비롯하여 현재의 대학수학능력 평가 시험에 이르기까지 한층의 불미한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이것은 보안관계 절차 등의 엄격함에도 기인하겠지만, 그 프로젝트에 종사하고 있던 전자계산 실장과

그 휘하 연구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에 더 큰 점수를 주어야 될 것으로 본다. 이것이 전자계산 실 및 KIST와 오늘날의 시스템 공학 연구소의 신뢰와 명성을 만들어 낸 것이다.

대개 대학입학 예비고사(이하 예비고사)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루게 되면 시험 답안지인 OCR 카드는 엄격하고 철통 같은 보호 속에 컴퓨터 처리를 위하여 KIST로 이송된다.

그때만 해도 OCR 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혁신된 방법인 데다가 첨단 이용기술이었기에, OCR 카드 제작이 국내 기술로는 불가능하여 이웃 일본에 특별히 주문하여 사용하였다.

아마 1972년이었을 것이다. 심혈을 기울여 OCR팀과 총무팀이 함께 예비고사용 OCR 카드를 디자인하여 일본에 주문한 후, 그 생산과정이나 품질체크 등 모든 면에서 이상 없이 진행된 후 배에 실려서 인천 항구로 향하고 있었다. 다만 제작 기간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이후 아무 문제 없이 인천에만 도착한다면 그런대로 큰 문제는 없을성 싶었다.

인천에 도착하면 전산실 총무의 소관을 떠나 KIST 자재부의 외자과에서 통관하여 전산실에 인도하여 주는 일만 남아 있었다.

그런데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였다. 늦가을 태풍으로 인하여 인천으로 향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 만나 배안이 침수가 되면서 목적지인 인천항까지 항해가 불가능하게 되어 울산으로 긴급 대피하고 말았다. 이런 경우를 항천사고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쓰일 원자재가 침수라니! 성기수 박사뿐만이 아니라 전 KIST의 소장단까지도 아연 실색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국가 대사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어찌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단 말인가.

문제는 만약 침수가 되어 OCR 카드가 젖었다면 이 카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재인쇄하여 온다 해도 최소한 두달은 소요되기 때문에 예비고사 당일 이전에 실시해야 하는 준비 사항의 점검에 이만 저만한 차질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이었다. 그렇다고 모든 수험생과 부모님들에게 약속한 예비고사 당일을 변경한다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따라서 그 배안에 있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느냐의 확인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졌었다면 당장 재주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재부 외자과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울산에서는 긴급 통관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행히도 우리 OCR 카드가 배 맨 밑바닥에 있었고 젖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에 실린 그 많은 짐을 하역해야만 하기 때문에 더욱 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KIST 소장단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고 했다.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있는 힘 없는 힘 모두 동원하여 심부름을 하여야 할 행정을 맡고 있는 총무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가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전문 주무 부서에서 불가능하다고 한 사안을 가지고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만져서 보아야 죽은 놈인지, 맥박은 뛰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야 아쉬움이 없을 것 아닌가. 그리고 만의 하나 인공호흡을 시키면 혹시나...

그렇다,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성기수 박사님의 허락과 KIST 소장단의 격려를 받으면서 울산 출장을 결심, 일의 성공 여부를 떠나 자재부와의 관계는 3일간의 작전 기간을 허용받았다.

OCR 팀 리더인 김우영 연구원과 머리를 싸매고 회의를 했다. 출장이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의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일본에 있는 인쇄 회사에는 비상 대기조를 준비시켜 언제고 서울에서 연락하면 즉시 인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길 원하듯, 누구라도 소개를 받아 출장가고자 짧은 시간 수소문한 결과 OCR 팀의 유락균 연구원의 매형이 울산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는 소리를 듣고, 유락균 연구원을 설득 후 울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 탔다. 귀가하여 출장 준비할 시간도 없이.

피곤이 겹쳐왔다. 맞부딪쳐 보겠다는 것이 작전의 전부. 무슨 경험이 있어야 이러쿵 저러쿵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유락균 씨는 연구원이었으므로 총무인 나보다 통관과 하역에 관해서 더 문외한이 아닐까. 그러나 듣든했다. 서로 쳐다볼 수 있으니까.

유락균 씨의 매형은 울산 지역 해운항만청의 최고 책임자였다. 지방 기관장의 입장에서 울산 세관장에게 읍소에 버금가는 협조 요청을 해 주었다. 얼마나 고마웠던지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벌써 OCR 카드를 통관하여 자동차에 싣고 서울로 가는 그림도 그려 보았다.

득의만만하여 세관장을 찾아 갔다. 세관장은 담당직원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 담당직원에게 사고 경위와 왜 현지인 울산에서 통관 확인이 필요하며 왜 화급을 다루는 일인지 설명하는데 하루 종일이 걸렸다. 컴퓨터 원리도 설명하고 얼마만큼 이 프로젝트가 중요한가도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 담당직원의 태도는 어디 한군데 긍정적인 데가 없었다.

다음날 세관장의 말씀은 울산에서의 하역 내지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규정도 그렇지만 부하로부터 대단히 세뇌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책상 밑으로 무엇을 바라는 눈치는 결코 아니었다. 낙심천만하여 유 연구원과 같이 울산 해운 항만청장을 다시 찾아갔다. 시간은 흐르고 묘안은 없었다. 이 3자 회동에서 유 연구원이 아이디어를 냈다. 저렇게 세관이 벽창호니, 문교부 장관의 협조공문을 받아 읍박지르면서 선처를 빌자고, 문교부도 똥줄이 타 있으니 협조는 불문가지.

하루가 또 지나갔다. 이번에는 울산 해운항만청장을 모시고 세관에 쳐들어갔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니 만큼 세관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하면서, 필요하면 해운항만청장인 본인이 책임 배서할 용의도 있음을 강력히 내비쳤다.

침묵이 흐른 후 세관장이 부하 담당자를 부른다. 여차 여차하니 협조하여 줄 방법은 없는지 물었다. 그는 전혀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누가 지나며 세관장에게 대들었다.

담배만 푹푹 빨다가,

“내가 책임지지” 세관장의 말씀이다.

‘오 부처님이시어’

“당신은 결재서류에 도장 안 찍어도 좋아, 내가 다 찍을 테니까, 알겠소?”

“아 알겠습니다. 곧 결재서류 해 올리겠습니다.”

세관 담당자의 이야기다.

이곳에 머물러 있던 5일 동안 나와 유 연구원이 개발한 아이디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운청장에게 전화로 전달됐고 이는 곧바로 세관장에게 협조 요청으로 전달됐으니 세관장님이 무척 괴로움을 당했을 것이고, 우리 해운항만청장님 막내 처남인 유 연구원의 애절한 부탁에 마음이 동했으리라.

일이 끝났다. 목욕이나 하자. 목욕탕에 들어선 우리는 서로 쳐다보고 아연실색하였다. 입고

있던 속내의는 차마 눈 뜨고 쳐다 볼 수가 없었다. 너무나 깨끗해서.

울산 내려 갈 때 책상 서랍에 있던 돈을 긁어 모아 내려 갔기 때문에 쓸 돈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일의 진척이 있어야 목욕도 하고 고기도 사먹을 것이 아닌가. 너무 고지식 했던가.

지금부터 1년 전까지만 해도 유락균 씨를 만나면 그때 그 팬티 이야기하면서 소주 서너잔에 거나하게 취하여 박장대소하며 헤어지곤 했다. 지금은 유 연구원이 고인이 되었으니, 명복을 빌 뿐이다.

그때 울산에서 통관된 OCR 카드는 정말 다행히도 침수는 되지 않고 습기가 찬 상태여서 KIST로 이송된 후, 존슨 강당에 그 많은 물량을 다 펴놓고 난방을 하여 말려 사용하였다.

OCR 카드를 난방으로 말려 사용했다는 진귀한 세계 기록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끼리 말이지만, 그때 성기수 박사님은 우리에게 저녁 사 먹으라는 위로금조차도 없으셨다. 그냥 저녁 맛있게 사 먹으라고 하셨지. 영수증은 나중에 갖다 드렸지만.